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꼭 있어야 할 '작은 도서관'

사용 검사만 받고 창고로

광주 설치 대상 145곳 중 15곳 불과

아파트는 건설시 단지 내에 주민 전용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아 제도 자체가 빛을 잃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의 아파트는 건설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구청의 사용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건설사들이 사용검사 직후 작은 도서관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사들이 도서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완료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회가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태반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동구 1곳 ▲서구 35곳 ▲남구 10곳 ▲북구 41곳 ▲광산구 58곳 등 총 145곳이다. 도서관 개설 대상은 지난 199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500세대 이상이어야 했으나 2006년 이후에는 규정이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돼 지금은 사실상 모든 아파트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작은 도서관 규모는 면적 33㎡(약 10평), 6개 좌석 이상의 넓이이며, 1000권 이상의 도서가 비치돼 있어야 한다.



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 중흥 S클래스 1단지 작은 도서관에서 입주민 자녀 30명이 모여 앉아 책을 보고 있다. 이 도서관은 냉방 시설과 컴퓨터가 완비된 방학철인 요즘 어린이들로 북적인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실농보상비 110만원 받으려다 입건된 할머니 사연

철도공단에 "돈달라" 요구하며

공사장서 포클레인 막고 시위

알고 보니 마을 이장이 쟁겨

도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작된 송정역~오송역 고속철도 공사가 오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철도공단은 공사구간에 포함된 장성군 서삼면 S리 일대에 대한 토지보상과 실농보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A(70)이장은 자신 소유의 500㎡(약 139평)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받았다.

농사는 70대 할머니가 실농보상비(영농보상비) 110만원 때문에 난생 처음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았다.

철도공사로 인해 농사를 못 짓는 대신 받아야 할 실농보상비가 마을 이장의 손에 들어간 줄 모르고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막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광주 송정역과 충북 오송역을 잇는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공사구간에 포함된 장성의 한 마을을 이장이 70대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할 실농보상비를 자신이 쟁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해당 이장은 군으로부터 수년 간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

사건은 A이장이 자신의 토지에서 일대를 얻어 수년간 농사를 짓던 이웃 B(여·71)씨가 받아야 할 110만5000원의 실농보상비까지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아 쟁기 데서 비롯됐다.

이를 모르고 있었던 B씨는 최근 철도공단에 실농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 운행을 끔으로 막는 등 시위를 벌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도공단)은 A이장은 자신의 토지에서 일대를 얻어 수년간 농사를 짓던 이웃 B(여·71)씨가 받아야 할 110만5000원의 실농보상비까지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아 쟁기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A이장은 "B씨가 수년간 토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그 뒷으로 보상비와 쌀 직불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울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 임건우 전 보험회장 영장 재청구

검찰이 불법대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4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기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임

기획재정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울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부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법무·소방직(전문)

명품 '강박대교'

7급 경찰직

9급 아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부시민 예술대교

개강
9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입도적 우!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내용참 (8373)
김충기



학부모 가장해 학원 침입
지갑 훔친 30대 구속영장

이 9건, '신용카드 연체·도용'이 8건, '전화요금 연체' 등 기타가 15건이다. 올 상반기 우분의 피해 예방 금액은 총 11억8000만원에 이른다.

우분은 "최근 금융기관과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사기범들이 국민의 높아진 불안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기범이 기관을 사칭하는 방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우분은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A씨는 처음에 은행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누군가 당신의 돈을 인출하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경찰을 가장한 사람이 A씨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전화했고, 잠시 후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다른 은행의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유도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양 트레일러 기사 숨져

4일 오후 3시30분께 광양시 중동 K횟집 앞길 4차선 도로에서 2t 트레일러 운전자 이모(41)씨가 자신의 차에 실린 코일에 끌려 숨졌다.

이씨는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서 코일을 싣고 가던 중 신호 대기중이던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헛들고 미처 피하지 못하게 되자 트레일러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금은방에 목걸이 치고 도주한 주부 덜미

○…금은방에서 주인을 훈란스럽게 만든 뒤 금목걸

이를 훔쳐 달아난 40대 주부가 경찰서행.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장모(여·40)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이모(여·34)씨의 금은방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목에 차고 달아났다

는 것.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2주 전 구매한 "금목걸이를 바꿔야겠다"고 교환을 요구해 다른 목걸이를 착용한 후 이씨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고 있는 틈을 놓아 곧바로 차량을 물고 도망쳤던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